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366장 다함께

- 1.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 2.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 3.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 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에베소서 4:2~3 다함께

²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³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교회 안의 갈등과 다름, 왜 생기는가?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다름이 일어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성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이성적이며, 어떤 사람은 교회의 뜨거움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정숙함과 조용함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은사 중심과 말씀 중심, 은혜 강조와 삶의 강조처럼 신앙의 결도 서로 다릅니다. 정치적 성향도 갈등을 더욱 날카롭게 만드는 요소가 되며,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곧 신앙적으로도 옳다고 여길 때 상대를 쉽게 정죄하게 됩니다. 예배 스타일과 문화 코드의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정치색, 문화 코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고, 특히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그 이질성이 커져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교회 안의 갈등은 종종 악의보다도 ‘다름’에서 시작되며, 우리 교회 같이 큰 공동체일수록 그 차이는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사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책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교회는 그저 종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전혀 새로운 사회이며, 세상에 뿌려진 거룩한 씨앗입니다. 바울은 이 새로운 사회가 확장되어 죄악으로 물든 세상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며,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사회 안에 사는 새로운 시민(neo anthropos)은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차이를 다루며, 그 다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 에베소서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새로운 사회로 보여주며, 그 안의 성도들은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첫걸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하나됨을 위해 필요한 성품으로 겸손, 온유, 오래참음을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 ‘타페이노테스’라는 단어가 원래는 비굴하고 굴욕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부정적 표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워 종이 되신 이후 좋은 뜻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갈등과 불일치의 배후에는 늘 교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더 잘 안다고 확신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거나, 사람을 교묘히 유도하는 태도가 모두 교만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겸손은 상대를 내 수단이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힘을 통제하는 것이며, 오래참음은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향해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첫걸음은 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겸손과 온유, 오래참음의 성품 위에서 세워집니다.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다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을 핵심 덕목으로 강조합니다. 여기서 용납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상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며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 문화 코드, 신앙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하거나 정리하거나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맞지 않으면 관계를 조용히 끊어버리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계속 관계를 붙들고 있어야 하며, 필요할 때는 함께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일에 같이 쓰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함”은 다름을 안고 가는 사랑이며, 진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 용납은 단순히 참아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붙들고 함께 서는 것입니다.

결론: 본질에는 일치하고, 비본질에는 관용하며, 모든 것에 사랑해야 합니다

5월 구역 공과는 어거스틴이 말한 교회의 기본 규범, 곧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원리로 요약됩니다. 본질은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삼위 하나님, 십자가, 부활, 재림과 같은 신앙의 핵심으로, 이는 양보할 수 없기에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반면 교회의 문화와 정서, 선교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들은 비본질이므로 정죄보다 관용이 필요합니다. 이 관용은 무관심이나 방임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대화하며 하나 됨을 지켜 가는 태도입니다. 교회는 획일성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른 은사와 취향, 스타일을 가진 이들을 정죄하거나 배제하는 곳이 아니라,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름을 공격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이며, 교회는 서로 다른 이들을 품고 함께 비상해야 합니다.

말씀 나눔

- ① 에베소서 4:2-3에서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어떤 성품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표현들을 함께 찾아봅시다. (힌트: 겸0, 온0, 00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000)
- ② 나는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성향이나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날 때, 보통 이해하고 품으려 합니까, 아니면 먼저 판단하고 거리를 두려 합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누어 봅시다.
- ③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본질’ 과 ‘비본질’ 을 잘 구분하지 못해 생기는 긴장이나 오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을 사랑 안에서 더 지혜롭게 풀이할 방법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④ 오늘 공과를 통해 받은 은혜나 위로,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세요.
특히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공동체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 용납의 행동’ 은 무엇인지 나누고 함께 기도합시다.